2019. 10. 제2019-8호 CEO Brief

부채적정성평가(LAT) 개선 방안 발표와 시사점

요 약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19. 10. 10)를 통해 최근 금리하락을 고려한 LAT 개선 방안과 함께 IFRS17 대비를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제도 개선안은 2019년 말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임. LAT 개선 방안은 IFRS17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금융당국은 추가금리 하락에 따른 보완책과 부채관리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계약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1.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19. 10. 10)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하여 부채적정성 평가(LAT) 및 RBC 개선안을 논의함

- (LAT 개선 방안) 최근 금리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채적정성평가(LAT)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IFRS17 대비를 위한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 단계적 적용 중인 **LAT 기준을 1년 순연**(2019년 적용 기준을 2020년으로 연기)하여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

〈표 1〉 LAT 단계적 적용 일정

구분	'17년 말	'18년 말	'19년 말	'20년 말
유동성 프리미엄	산업위험스프레드[1] 100%	산업위험스프레드 80%	변동성 조정 → 산업위험스프레드 80%	변동성 조정[2]

주: 1) 산업 평균 자산운용수익률에서 국채수익률을 차감한 값
2) 산업위험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을 차감한 값

  - 준비금 적립액을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적립하는 **「재무건전성 준비금」 제도를 신설**하여 배당제한을 통한 자본확충을 기대함(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됨)

- (할인율 개선 방안) 이자율 추가 하락에 대비하여 할인율 산출 방식 변경을 검토 중에 있음
  - 최종관찰만기(20년)의 변경 가능성은 연구용역 진행 중임

- 무위험수익률(국고채)을 평가시점이 아닌 과거 일정기간(1년, 2년, 3년)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RBC 개선사항) 제도 변화 대비를 위해 금리리스크는 개선하고 외환차환리스크(Roll-over Risk)를 신설함
  -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통한 금리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리파생상품을 위험액 평가에 반영**하여 채권뿐만 아니라 파생상품으로도 자산듀레이션 확대를 가능하게 함
  - 국내 저금리 지속으로 외화증권 투자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 환헤지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 만기보다 짧은 환헤지 계약은 요구자본을 부과함

- (향후 일정) 보험업 감독규정과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안 사전 예고(10. 14~11. 3)를 거쳐 2019년 말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예정임

2. 시사점

- LAT 개선 방안은 IFRS17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최근 시장 환경의 급변에 따른 산업의 안정성과 수용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 다만,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여 자본이 부족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재무건전성 준비금」에 대한 세부 평가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배당정책 수립 등 회사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어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재무건전성 준비금’과 유사한 제도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해외에서도 운영 중에 있음

-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관리 수단으로 ‘금융 재보험’, ‘계약 이전(Transfer)’, ‘계약 재매입(Buy-back)’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계약 이전은 대만에서 생보사 간 고금리 계약(4% 이상)을 이전한 사례가 존재함
  - 계약 재매입은 벨기에 생보사가 고금리 계약에 대해 10~25%의 프리미엄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구매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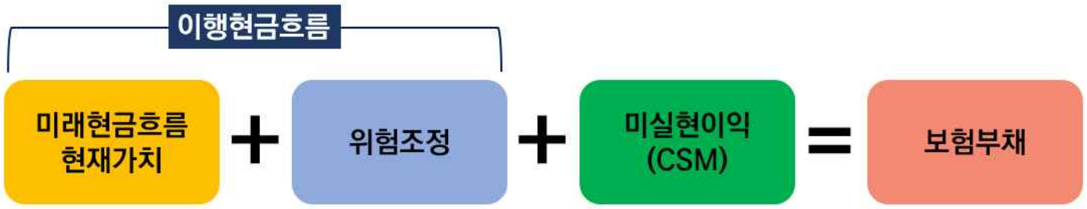
-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보험회사는 제도 변화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리리스크를 관리하여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금리에 덜 민감한 상품 판매 등의 노력이 필요함

노건엽 연구위원
gynoh@kiri.or.kr

별첨: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 할인율 산출 방안

- IFRS17의 보험부채는 **미래현금흐름, 할인율, 위험조정, 미실현이익(계약서비스마진)**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할인율이 부채평가에 많은 영향을 미침
  - 할인율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평가함
  - 위험조정은 미래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반영함
  - 미실현이익은 최초 계약시점에서 평가하고 이후 기간 경과에 따라 상각함

〈그림 1〉 보험부채 평가모형



- IFRS17 할인율은 **계약 기간이 장기이며 유동성이 낮은 보험부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 위험이 반영되지 않은 현금흐름에 적용하므로 **무위험수익률**로 할인율을 산출함
    - 금융상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수익률)으로 할인을 하며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하는 경우는 무위험수익률을 적용함
    - 무위험수익률로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또는 이자율스왑이 사용됨
  - 무위험수익률은 시장에 거래되는 기간 중 거래량,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관찰기간**(예: 20년)을 선정함
    - 장기로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할인율은 100년 이상이 필요하나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은 20년 이하가 대부분임
  - 무위험수익률에 **보험계약의 비유동성을 반영한 값(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산함
    - 채권의 경우 만기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유동성의 차이로 설명함
    - 한편, 보험계약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부채의 유동성을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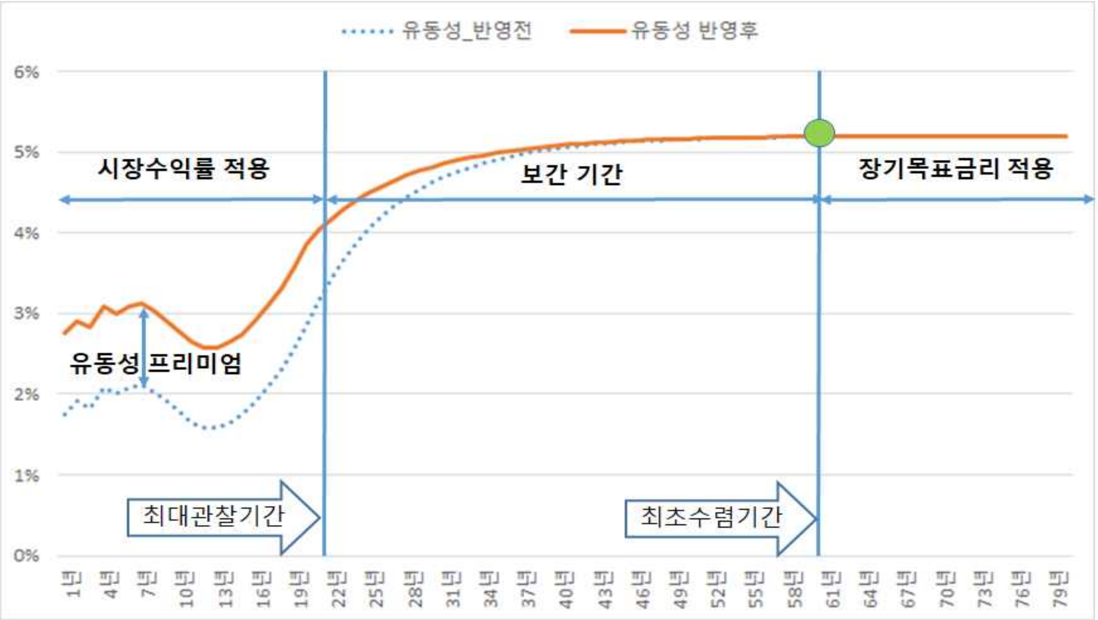
- 예를 들어, 즉시연금보험은 계약자 옵션(해지)의 제약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이 낮아 유동성 프리미엄이 높으나 유니버셜보험은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이 높아 유동성 프리미엄이 낮음

〈표 1〉 보험상품별 유동성 프리미엄 수준

보험상품	보험금 지급시기와 금액의 불확실성	유동성 프리미엄
즉시연금	낮음	높음
유니버셜보험	높음	낮음

- 계약 특성에 따라 유동성 프리미엄을 달리 적용해야 하나 실무적으로 계약별로 유동성 수준을 완벽히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단일한 값을 적용함
- 또한, 보험계약의 유동성 프리미엄은 직접 관찰이 되지 않아 자산과 부채가 일정수준 연관성이 있음을 가정하여 자산 수익률을 이용함

〈그림 2〉 할인율 곡선



- 최대관찰기간 이후는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금리(장기목표금리)를 가정하고 최대관찰기간(예:20년)에서 장기목표금리를 적용하는 최초 수렴기간(예: 60년)까지 보간함
  - "장기목표금리 = 기대실질이자율 + 목표인플레이션"으로 산정함
  - 장기목표금리는 매년 재산출하나 변동폭은 연간 0.15%로 제한함

- 할인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의 수준에 따라 보험부채 크기가 결정됨
  - 최대관찰기간이 짧고, 유동성 프리미엄이 크고, 장기목표금리가 클수록 부채는 감소함

- LAT 할인율은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서 '17년 말부터 IFRS17 산출 방법을 적용함
  - 무위험수익률은 국고채, 최종관찰기간 20년, 유동성 프리미엄은 산업위험스프레드, 장기목표금리는 국내 통계 적용 등

〈표 2〉 평가시점별 할인율 산출 기준

평가시점	무위험 수익률	최종관찰 기간	유동성 프리미엄 (산업위험스프레드 비중)	장기목표 금리	국채 10년 수익률
'17년 12월	국고채	20년	0.94%(100%)	4.2%	2.467%
'18년 6월			0.95%(100%)		2.555%
'18년 12월			0.824%(80%)		1.956%
'19년 6월			0.88%(80%)	5.2%	1.595%

  -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유동성 프리미엄은 단계적으로 적용**함
    - '산업위험스프레드'는 회사 운용자산이익률에서 국고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이며, 회사별 운용자산으로 가중평균함(즉, 유동성 프리미엄 외에 신용위험 포함)
    - '변동성 조정'은 보험산업 대표포트폴리오의 만기별, 신용등급별로 유동성 프리미엄을 산출하여 금액으로 가중평균함

〈표 3〉 유동성 프리미엄 단계적 적용

'17년 말	'18, '19년 말	'20년 말
산업위험스프레드 100%	산업위험스프레드 80%	변동성 조정